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혜 스님

윤태훈 기자



교계 입력 2021.10.03 14:31 수정 2021.10.03 15:12 호수 1604 댓글 0

“순례, 행복 찾는 법 배우는 기회”

서로 독려·의지해 순례 원만회향 할 것  
안전요원을 비롯한 지원팀의 노고 감사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지난해 자비순례에 비해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넘어야 할 높은 재들이 많은 만큼 끊임없이 오르고 내려가는 힘든 여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례가 행복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삼보사찰 천리순례 5조 조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순례시간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조원들을 독려하고 챙기며 힘겨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장으로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건강하고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조원들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걷다가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 넘어져 다칠 수도 있기에 걷는 내내 조원들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함께 배려하고 힘을 북돋으며 걷다 보면 조원 모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 스님은 순례에 앞서 1000계단을 오르는 것을 포함해 매일 15000보를 걸으며 다리에 힘을 길렀다. 한 사람의 순례대중이면서 또한 뒤늦게 조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맡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런 노력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걸음이 되기를 염원했다.

스님은 사부대중의 안전을 위해 선두부터 후미까지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안전요원을 비롯해 공양, 숙영지 등에서 봉사하는 지원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코로나 감염, 지나가는 차 등 순례 도중에 만나는 많은 위험요소로부터 순례단을 보호하는 안전요원들과 공양, 숙영지 준비 등에 힘쓰는 지원팀의 희생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 최신뉴스 더보기 >



코로나 극복과 치유 위 썩게총림 썩게사, 개산한 영축산 개산의 축제 1297주년·창건 1181주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1회 산해원문화상 후보...  
양주 청련사, 중앙절 맞아 생전예수시왕칠일재...  
전국비구니회, 불교유적 가톨릭 성지화 대응...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  
불교환경연대, 20주년 맞아 100일 기도 진행  
조계종 사노위, 기후정의 실현 촉구 행진  
달라이라마 “무조건적인 믿음 경계하고, 사유...  
유승민 후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불교...

## 연재 < >

- 자현 스님의 유튜브 입성기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18. 기러기 - 상
-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2. 지혜 ⑥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 관련기사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증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불교언론 역할 이고득락에 ...



### 많이 본 뉴스

- 01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02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갇아야죠”
- 03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심진강변을 걷다
- 04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05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6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려자
- 07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8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09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 10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⓪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P**